

Summer Session 후기 (UTT편)

1. 출국 준비 및 기숙사 신청

Summer Session으로 프랑스에 가게 된다면 별도로 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90일 이내 체류자는 여행 목적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UTT에서 오기 전에 Housing Application을 신청하고 오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날은 호텔에서 묵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UTT측에서 요구하면 된다. 이번 썸머세션 포항공대 학생들은 모두 같은 기숙사 ADPS에서 살게 되었는데, 개인방안에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은 공용이다. 인터넷도 기숙사비에 모두 포함되지만, 4~5주 동안 2~3주는 고장 난 상태였다. 기숙사 전기도 자주 나가는 편이다. 단기유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에서 더 가까운 기숙사가 더 좋다. 썸머세션과 단기유학 모두 학교 근처 숙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과목 정보

UTT는 여름에 French Intensive Course를 운영한다. 여기서 Project Management과 French을 레벨에 따라 반 배정을 해준다. French은 학교에서 학점인정을 2학점 밖에 해주지 않아서, 대부분 썸머세션 학생들은 Project Management만 들었다. 이 과목은 과목명 그대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배우는 것이다.

3. 대학 생활

여름방학 때, 유럽 현지인들은 휴가를 많이 간다. 다른 식당은 닫아도 다른 곳을 갈 수 있지만, 문제는 학교급식도 휴가를 가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슈퍼가 어딘지도 모르고, 후라이팬 등의 장비도 없어서 고생을 좀 하였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졌다. 프랑스에서 삼시 세끼를 짚는 것 같았다. 원래 매일 식당에서 먹으려고 하였지만, 여기 식재료가 싸고 신기한 것이 많아서 마트도 종종 갔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학생과 저녁 식사가 있고,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trip들이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참여하면, 많은 학생과 친해질 수 있다. 이번 유학생들 비중은 멕시코인과 중국인들(및 싱가포르, 타이완)이 많이 차지하였다.

4. 유학 경비 및 여행 정보

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유학 경비는 별로 들 게 없다. 항공료와 기숙사비는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밖에서 사먹지 않으면 식비도 저렴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학비 면제). 학교 행사는 파리 (약

90유로), Grand Lake (약 45 유로), Visit of the Region (약 30유로)이다. 프랑스에서 벨기에와 영국이 제일 가기 편한데, 그래도 트루아에서 파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여행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트루아 지역에서 다른 주변 지역도 탐방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대부분 파리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다.

5. Troyes

프랑스 하면 대부분 파리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 Troyes은 국어로 트루아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발음은 “뜨아”를 빨리 읽는 느낌이다. 파리에서는 1시간 30분 거리이며, 당일로 표를 끊으면 27.90 유로이다. 표를 일찍 사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 트루아의 시내는 Medieval 시대의 느낌을 주며, 포항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처음에는 포항보다 더 도시 느낌이 났지만, 파리를 다녀오면 주민들이 왜 작은 마을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간다. 버스는 여름에는 시간표가 좀 달라지는데, 저녁 8시 30분쯤에 시내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막차가 있다. 다른 버스들도 차편이 일찍 끊긴다. 다른 상가들도 7시면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한다. 학교 주변에는 2개의 마트가 있으며, 11번 버스를 타면 Carrefour에 갈 수 있다. 식재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자전거를 빌려서 Grand Lake을 다녀올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에는 여름에 해가 8시면 지는데, 여기는 9-10시 사이에 해가 저서 낮이 매우 길다. 그리고 날씨는 선선하지만,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늘이 별로없다) 낮에 더울 때도 있다. 한국의 여름에 비해서는 매우 선선하고 건조한 편이다.

6. 후기

단기유학보다 Summer Session을 택한 이유에는 여럿이 있다.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간부 역할도 몇 가지 하다 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유학은 해외에 너무 오래 있는데, 개인적으로 1달만 해외에 바람 쐬러 나가고 싶었다. 포항에만 있다 보니 내 세상 관이 너무 좁혀지지 않았나 싶고 그냥 유럽에 가고 싶었다. 원래 Summer Session에는 대학교 선택지가 몇 가지 없었다. 미국, 싱가포르, 영국이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학비가 매우 비싸고, 물가도 비싸며, 싱가포르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였고, 운 좋게도 UTT 프랑스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 사실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끼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외국 친구들도 다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으며, 프랑스 사람들도 딱딱하다고 소문났지만 다들 예의가 바르다. 딱딱하다는 것은 아마 예의를 지키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인은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워서 간단한 불어와 body language으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영어를 잘 못 해서 불어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도 있으면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Summer Session에 오게 된다면, (다른 대학을 가더라도) 컵라면이나 라면을 몇 개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